혈루병 여인은 백설공주

(마태복음 9:18~26)

18.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19.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20.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21.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22.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23.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24.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25.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26.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혈루병 여인은 백설 공주>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혈루병 여인은 백설 공주'

백설 공주란 혈루병 걸린 여인의 마음 상태에 대한 비유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혈루병은 자궁의 출혈이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위생관념이 떨어지던 당시에 열두 해를 혈루병을 앓았으니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을지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한편 레위기 15장에서는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부정하게 여겨져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의식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접촉을 한 사람과 물건도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하물며 출혈이 지속되는 혈루병을 앓고 있었으니 얼마나 부정하게 여겨졌을지는 쉽게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부정함은 곧 하나님과 끊어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하나님과 만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부정함의 속성입니다. 따라서 혈루병 여인은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부정함의 온상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여인이 밥을 먹고 그릇을 씻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그 그릇을 만졌다면 그것만으로도 부정해집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람과도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었고 삶을 공유할 수 없었기에 필연적으로 격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가 없던 그 시절에 이렇게 격리된 상태에서는 결혼이나 친구와의 만남은커녕 어떠한 사회

생활도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마치 이전 말씀에서 등장하였던 나병환자를 연상하게 합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은 나병환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삶은 곧 관계의 연속입니다. 관계가 없으면 마음을 보낼 대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로부터 참 놀라운 역설이 발생합니다. 세상과의 관계가 허락되지 않는 이 상황이 곧 세상의 삶에 대해 죽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서는 바로 이러한 상태가 백설 공주와도 같은 순백의 마음으로 여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독립된 사건으로 다루지 않고 앞뒤로 나타나는 사건들과의 맥락에 맞추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금식에 대한 논쟁에 대해 예수님께서 새 술과 새 부대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 금식의 목적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규정에 따른 금식은 불필요 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을 보면 금식은 일 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속죄일을 안식일 중의 안식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속죄일에 이루어지는 금식은 안식일과 같은 의미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통해 경건의 모습을 타인에게 보이고 싶어 했고,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같지는 않았으나 경건을 추구하는 방법으로써 금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금식을 통해서 성취되어야 하는 안식의 의미는 첫 번째 안식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부족할 때에 금식을 해서라도 안식일의 목적을 이루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안식하십니다. 이 안식일에 아담은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첫 번째 대상으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아담은 누구와도 관계를 맺지 않았고 세상 그 어느 것에도 마음이 붙잡혀있지 않은 순백의 상태였습니다. 안식일과 금식의 목적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첫 번째 만남을 삶에서 재현하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인류가 하나님과 마주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혼인집 신랑의 비유를 통해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 안식일과 금식의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순백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서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규정이나 관습에 의한 삶이 아니라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시를 받고 뜻을 전달받아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금식과 안식의 목적이 이루어진 사람에게서는 규정이나 습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않는다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는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순백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혈루병 여인의 사건을 통해 보여줍니다. 태초에 있었던 하나님과 아담의 만남을 예수님과 혈루병 여인의 만남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혈루병 여인에게는 어떠한 관계도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관계가 없기에 삶의 내용 또한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순백의 마음의 상태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와 겉옷을 붙잡는 장면은 우리 마음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치이셨으며 이 여인은 첫 번째 안식일의 아담의 위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관계가 끊어진 순백의 마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금식은 안식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규정이나 관습에 의한 금식은 그 의미를 충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금식은 곧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간절함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간절함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열두 해를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의 불편함과 불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병에서 낫기를 원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금식에 임하고 안식일을 지키듯이 예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은 백설 공주와 같은 순백의 상태가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소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리해봅니다. 혈루병 여인의 일화는 앞서 등장한 금식논쟁에 대한 각주와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식의 목적은 하나님을 순백의 마음으로 만나는 것에 있었습니다. 순백의 마음이란 열두 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처럼 세상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이 여인은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간절함을 통해 금식과 안식의 목적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마음을 드릴 때에 세상에 대한 모든 관계는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순백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열두 해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의 간절함을 가지고 십자가 생활화를 해야만 합니다.

다만 만남은 일방적인 요구일 수 없습니다. 쌍방이 원할 때에 만남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를 드러내기 위해 마태는 이 혈루병 여인과 죽은 소녀가 살아난 사건을 연결 짓고 있습니다. 사건 속에 사건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관리의 집에 가서 죽은 딸을 살리시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누

가복음 8장 41~42절을 보면 이와 관련하여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 이는 자기에게 열두 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고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열두 살 된 외딸이 거의 죽게 되자 딸을 살리고자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혈루병 여인의 간절함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향해 가져야 할 간절함이었다면, 죽어가는 딸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간절함은 첫 번째 안식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입니다.

우리는 모두 혈루병에 걸린 부정한 자와 같고 회당장의 죽어가는 딸 같은 존재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며 간절히 만나기를 바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못할 때에 우리는 죽어가는 회당장의 딸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로써 자녀에게 마음을 보낸다면 하나님께로 흘러가야 할 마음이 혈루병에 걸린 것처럼 출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끊어지게 됩니다. 야이로의 외딸이 죽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죽은 것입니다. 또 마음을 건강에 쏟을 수 있고 사업에 쏟을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마음이 혈루병에 걸린 셈입니다.

이때에 자신만 부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혈루병 여인과 접촉한 사람들이 부정해지듯이 내가 마음을 보내 접촉한 대상들이 모두 부정해집니다. 자녀가 부정해진다는 것은 자녀에 대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이 끊어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백설 공주와 같이 순백의 상태가 되지 못하고 세상을 담아 부정하게 될 때에 그것들에게 미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 또한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남북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잘 살게 되는 것도 아니며, UN이 세계평화를 이루는 것 같은 요란한 일들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의 마음이 백설 공주와 같이 되어서 첫 번째 안식일에 아담과 하나님이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간절함은 오직 내게 달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마음을 드려서 백설 공주의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세상에 보내는 동안 혈루병 여인처럼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죽은 소녀에게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세상과 관계하며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함과 희망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안식일에 아담을 만나셨던 것처럼 나와 만나고자 하시는 간절함은 죽은 딸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간절함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간절함을 마음에 담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혈루병 여인이 낫고자 했던 간절함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하는 간절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러한 간절함을 받아들이시고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중간에서 아버지의 간절함을 전달하시며 또한 우리의 간절함을 아버지께로 도달하게 해주십니다. 이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혈루병에 걸린 환자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돈 문제가 신경 쓰이고 배우자의 문제가 신경 쓰이고 자녀의 문제가 신경 쓰일 때에 우리의 마음에서는 출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면 할수록 더 많은 출혈이 일어날 뿐입니다. 우리의 간절함은 마음의 출혈을 멈추는 쪽을 향해야지 출혈을 가중시키는 쪽을 향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돈 문제를 해결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간절하게 더 많은 출혈을 하게 해달라는 기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출혈을 일으키는 세상에 대해 죽고 백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유일한 과제입니다. 그 일을 위한 기회로써 삶은 존재합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할 때에 삶은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닿는 영역이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의해 주어지는 것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순백의 간절함으로 일관되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뜻과 생각과 힘이 삶을 부정하게 하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힘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 생활화를 함으로써 범사에 감사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설령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는 상황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이 세상의 삶은 나의 기쁨과 만족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순백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에덴을 회복하고 더 원하지 않을 만큼 기쁨과 만족과 평강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열두 해를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의 간절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마음은 백설 공주가 되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마음을 백설 공주의 마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열두 살 외딸을 둔 아버지의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와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음을 빼앗기는 세상일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백설의 마음으로 하늘로 올라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신경 쓸 모든 일에 대해서 보배로운 마음과 뜻과 힘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열두 살 외딸의 죽어가는 모습 앞에서 딸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간절함으로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하신 아버지의 간절한 뜻을 따라 오늘도 내 마음이 혈루병의 증상을 나타내려 할 때마다 십자가를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백설의 마음이 되어서 아담이 첫 번째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기필코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